

수능 1등급으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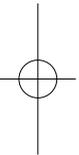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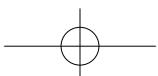
美來路 미래로



수능 기출문제집 03

전 지문 완벽 분석 및 모든 선택지 집중 해설

국어 문학





美來路 국어 문학

수능 기출문제집 시리즈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꿈은 희망이며 가능성입니다. 꿈과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미래로(美來路) 수능 기출문제집 시리즈가 여러분의 좋은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한 선생님들

김주혁 압구정국어논술전문학원 원장, EBS 강사
임동민 인명여고
이효선 정신여고
안희진 서울사대부고

1판 1쇄 발행일 : 2017년 12월 20일

펴낸이 : 이동준, 정재현
 기획 및 편집 : 김기진, 김은수, 박영미
 디자인 : 굿윌디자인

펴낸곳 : (주)이룸이앤비
 출판신고번호 : 제2009-000168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길 4-3 이룸빌딩(우 06312)
 대표전화 : 02-424-2410
 팩스 : 02-424-5006
 홈페이지 : www.erumenb.com
 ISBN : 978-89-5990-431-0

Copyright © (주)이룸이앤비, 2018
 이 책에 실린 모든 디자인 및 편집 형태에 대한 저작권은 (주)이룸이앤비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전재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국어 문학 기출문제집, 이렇게 공부하세요!

매일 일정한
학습 분량을 정해
꾸준히
공부합니다.

각 갈래별로 공부해도 좋고 갈래를 혼합하여 공부해도 좋지만, 하루에 정한 학습 목표량은 반드시 소화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어에 대한 감각이 유지되고 실력이 향상됩니다.

제한 시간을
정한 후 각 단계별로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합니다.

시간 부족은 대부분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지문을 읽은 후, 문제를 풀면서 또다시 읽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에 제한 시간을 정해 놓고 각 단계별로 제대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정답만 찾는
공부법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답과 오답 정도만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풀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를 효과적으로 공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새롭게 출제되는 수능에서는 이미 나온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답만 찾는 공부법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
제재 및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습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약점 제재나 유형 또는 실수를 많이 한 문제 등을 찾아야 합니다.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책에 별도의 표시를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시험이 임박한 시기일수록 약점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을
두 번 이상 반복하여
복습합니다.

기출문제집은 가장 검증된 문제로 구성되었기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의 반복 학습과 복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의 복습은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복습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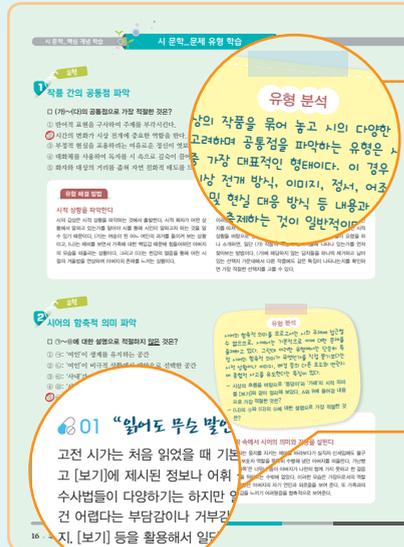


이 책의 구성과 특징

1 갈래별 핵심 개념 학습 + 문제 유형 분석으로 효율적 수능 대비

핵심 개념 학습

시가, 소설, 수필·극 등 갈래별 핵심 개념을 요약·정리하여 한 권으로 개념과 문제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 유형 분석

시가, 소설, 수필·극 등 갈래별로 해마다 출제되는 대표 문제를 선정한 후, 유형 분석 및 해결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갈래별 처방전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앞서 갈래별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사항들에 대한 조언을 통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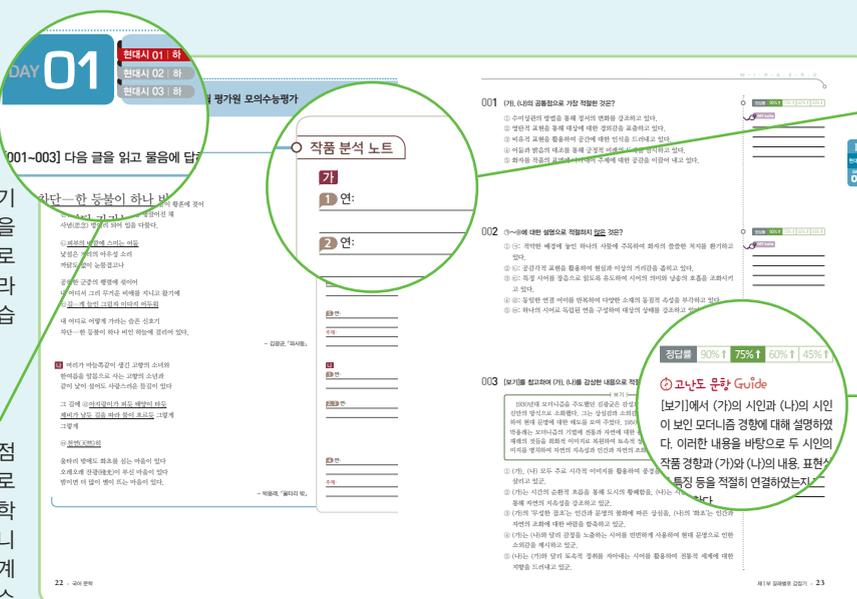
2 일차별(25일) + 난이도별 구성으로 단계별, 수준별 학습 가능

일차별(25일) 구성

수능 및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를 1일 3세트 25일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각각의 학습 일정표에 따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래별·난이도별 구성

갈래별로 쉬운 문제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 순서로 구성하여 단계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쉬운 단계의 문제를 푼 후, 자신의 수준을 점검한 다음 학습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작품 분석 노트

시가 문학에서는 스스로 쓰면서 작품 분석 능력과 감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설 문학은 작품의 구조도나 인물의 관계도 등 작품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답률+고난도 Guide

각 세트별 3점 문항이나 고난도 문항에는 구체적인 정답률과 문제 해결 Guide를 수록하여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Structure

3 신유형 + 최신 기출문제 총망라로 출제 경향 파악이 쉬운 구성

갈래 복합, 신유형

최근 들어 신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 평론(이론)과 문학 작품을 묶은 고난도 지문을 눈에 띄게 구성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최근 7개년 수능 및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를 총망라하여, 연도별 수능 출제 경향 및 유형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수 문항 모의고사

수능 문제의 유형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존 기출문제 중에서도 눈에 띄는 문제 유형이나 작품을 엄선하여 미니 모의고사로 구성 하였습니다.

4 秘 서브노트;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문 및 정·오답 완벽 분석

전 지문 행간주 분석

'秘 서브노트'는 모든 수록 지문에 행간주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작품 해제, 작품 한 눈에 보기, 내용 들여다보기, 표현 들여다보기, 출제 의도 파악 등을 통해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수능 특독

문제 해설 중간중간에 선별적으로 수능 특독란을 만들어 필요한 개념이나 효율적인 풀이 방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시간 단축 및 효과적인 풀이 방법을 익히기 바랍니다.

전 문제 분석

수록된 모든 문제와 정답 및 오답까지도 꼼꼼히 분석하여 어느 부분 때문에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秘 서브노트'를 통해 문제 풀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 / STUDY PLANNING

I 갈래별로 감잡기

【시가 문학】 핵심 개념 학습 + 문제 유형 학습

1 현대시

DAY	수준	제목	연도	페이지	공부한 날
DAY 01	하	01 외사등_김광균 / 울타리_박용래	2014년 6월 평가원	p.022	<input type="text"/>
	하	02 모란이 피기까지는_김영랑 / 고고_김종길	2014년 9월 평가원	p.024	<input type="text"/>
	하	03 병원_윤동주 / 나무_박목월	2016년 9월 평가원	p.026	<input type="text"/>
DAY 02	중하	04 생명의 서·일장_유치환 / 농무_신경림	2013년 9월 평가원	p.028	<input type="text"/>
	중하	05 아침 이미지 1_박남수 /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_김기택	2016학년도 수능	p.030	<input type="text"/>
	중하	06 추천사_서정주 / 느티나무로부터_복효근	2015년 3월 교육청	p.032	<input type="text"/>
DAY 03	중	07 성묘_고은 / 외할머니의 뒤편_ Tits마루_서정주	2015년 6월 평가원	p.036	<input type="text"/>
	중	08 팔원-서행시초 3_백석 / 동승_하종오	2013년 6월 평가원	p.038	<input type="text"/>
	중	09 머슴 대길이_고은 / 즐거운 나의 집_신경림	2016년 3월 교육청	p.040	<input type="text"/>

2 고전 시가

DAY	수준	제목	연도	페이지	공부한 날
DAY 04	하	01 시집살이 노래	2013년 6월 평가원	p.046	<input type="text"/>
	하	02 도산십이곡_이항	2014년 6월 평가원	p.048	<input type="text"/>
	하	03 매화사_안민영	2013년 9월 평가원	p.050	<input type="text"/>
DAY 05	중하	04 천만리 머나먼 길히~_왕방연 / 청초 우거진 골에~_임제 / 흥망이 유수하니~_원천석	2014학년도 수능	p.052	<input type="text"/>
	중하	05 어이 못 오던다~ / 청천에 떠서 울고~ / 정선 아리랑	2015년 6월 평가원	p.054	<input type="text"/>
	중하	06 성산별곡_정철	2016년 3월 교육청	p.056	<input type="text"/>
DAY 06	중	07 연행가_홍순학	2017학년도 수능	p.060	<input type="text"/>
	중	08 어와 동량재를~_정철 / 고공답주인가_이원익	2016학년도 수능	p.062	<input type="text"/>
	중	09 전원사시가_신계영	2015년 9월 평가원	p.064	<input type="text"/>

【소설 문학】 핵심 개념 학습 + 문제 유형 학습

3 현대 소설

DAY	수준	제목	연도	페이지	공부한 날
DAY 07	하	01 광장_최인훈	2013년 9월 평가원	p.078	<input type="text"/>
	하	02 만세전_염상섭	2013년 6월 평가원	p.080	<input type="text"/>
	하	03 삼대_염상섭	2016년 6월 평가원	p.083	<input type="text"/>
DAY 08	중하	04 천변풍경_박태원	2013학년도 수능	p.086	<input type="text"/>
	중하	05 소리의 빛_이청준	2016년 3월 교육청	p.089	<input type="text"/>
	중하	06 모래톱 이야기_김정한	2014년 6월 평가원	p.092	<input type="text"/>
DAY 09	중	07 아홉 결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_윤홍길	2016학년도 수능	p.096	<input type="text"/>
	중	08 옛우물_오정희	2015년 9월 평가원	p.099	<input type="text"/>
	중	09 무영탑_현진건	2015학년도 수능	p.102	<input type="text"/>

Contents

4 고전 소설

- 하 01 토끼전
- 하 02 운영전
- 하 03 사씨남정기_김만중
- 중하 04 속향전
- 중하 05 최척전_조위한
- 중하 06 전우치전
- 중 07 국순전_임춘
- 중 08 창선감의록
- 중 09 옥루몽_남영로

2016학년도 수능	p.108
2015년 3월 교육청	p.111
2016년 3월 교육청	p.114
2015학년도 수능	p.117
2016년 6월 평가원	p.120
2015년 6월 평가원	p.123
2013년 9월 평가원	p.126
2015년 9월 평가원	p.129
2014학년도 수능	p.132

공부한 날

[수필·극 문학] 핵심 개념 학습 + 문제 유형 학습

5 수필·극

- 하 01 권태_이상
- 하 02 낙엽을 태우면서_이효석
- 하 03 봄_윤오영
- 중하 04 원고지_이근삼
- 중하 05 결혼_이강백
- 중하 06 성난 기계_차범석
- 중 07 봄날_이강백
- 중 08 제향날_채만식
- 중 09 동지선달 꽃 본 듯이_이강백 원작

2014학년도 수능	p.148
2013년 10월 교육청	p.150
2013년 6월 평가원	p.152
2013년 9월 평가원	p.154
2015년 6월 평가원	p.156
2014년 3월 교육청	p.158
2016년 3월 교육청	p.161
2016학년도 수능	p.164
2013년 3월 교육청	p.167

공부한 날

II

고난도 및 신유형으로 실력 높이기

- 중상 <현대시> 파초우_조지훈 / 사평역에서_곽재구
- 중상 <현대 소설> 흐르는 북_최일남
- 중상 <극> 불꽃_선우휘 원작
- 중상 <고전 시가> 방옹시여_신흥
- 중상 <고전 소설> 임경업전
- 중상 <현대 소설> 소문의 벽_이청준
- 중상 <갈래 복합> 관동별곡_정철 / 유한라산기_최익현
- 중상 <현대시> 고향 앞에서_오정환 / 낮은 집_최두석
- 중상 <고전 소설> 유충렬전

2014학년도 수능	p.172
2015년 6월 평가원	p.175
2013년 4월 교육청	p.178
2016년 9월 평가원	p.182
2014년 6월 평가원	p.184
2014학년도 수능	p.188
2015학년도 수능	p.191
2015학년도 수능	p.194
2014년 9월 평가원	p.196

공부한 날



STUDY PLANNING

- DAY 19**

 - 상 <갈래 복합> 꽃덤불_신석정 / 사랑_전봉건 / 보리_한흑구
 - 상 <고전 시가> 만분가_조위
 - 상 <신유형> 평론 / 박씨전 / 시장과 전장_박경리
- DAY 20**

 - 상 <신유형> 평론 / 동동 / 가시리
 - 상 <갈래 복합> 향현_박두진 / 우리가 물이 되어_강은교 / 눈_박이문
 - 상 <갈래 복합> 독 짓는 늪은이_황순원 원작 / 독 짓는 늪은이_황순원
- DAY 21**

 - 상 <갈래 복합> 구름의 파수병_김수영 / 느낌, 극락같은_이강백
 - 상 <갈래 복합> 상춘곡_정극인 / 와룡폭포기_채제공
 - 상 <신유형> 평론 /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_김시습

2015년 9월 평가원	p.200
2014년 9월 평가원	p.204
2017학년도 수능	p.206
2016년 6월 평가원	p.211
2016년 6월 평가원	p.214
2016년 9월 평가원	p.218
2017학년도 수능	p.222
2015년 3월 교육청	p.227
2016년 9월 평가원	p.230

공부한 날

III

최신 기출문제로 실력 평가하기

- DAY 22**

 - 중 <갈래 복합> 입암이십구곡_박인로 / 고완_이태준
 - 중 <현대 소설> 회색 눈사람_최윤
 - 중상 <신유형> 평론 / 금령전 / 심청전
 - 중 <현대시> 노신_김광균 / 새에 대한 반성문_북효근
- DAY 23**

 - 중 <신유형> 평론 / 고흥 의상_조지훈 / 결빙의 아버지_이수익
 - 중 <현대 소설> 큰 산_이호철
 - 중 <고전 소설> 적성의전
 - 중 <갈래 복합> 오류가_주세붕 / 차마설_이극
- DAY 24**

 - 하 <현대시> 플라타너스_김현승 / 달_정지용
 - 하 <극> 불모지_차범석
 - 중상 <갈래 복합> 춘향전 / 춘향이별가
 - 중 <현대 소설> 눈이 오면_임철우
- DAY 25**

 - 중 <신유형> 강 건너간 노래_이육사 / 묘비명_김광규 / 평론
 - 하 <고전 소설> 사씨남정기_김만중
 - 중하 <갈래 복합> 비가_이정환 / 풍란_이병기
 - 중하 <현대 소설> 관촌수필_이문구

2017년 3월 교육청	p.236
2017년 3월 교육청	p.239
2017년 3월 교육청	p.242
2017년 3월 교육청	p.247
2017년 6월 평가원	p.250
2017년 6월 평가원	p.253
2017년 6월 평가원	p.256
2017년 6월 평가원	p.260
2017년 9월 평가원	p.264
2017년 9월 평가원	p.266
2017년 9월 평가원	p.270
2017년 9월 평가원	p.274
2018학년도 수능	p.278
2018학년도 수능	p.281
2018학년도 수능	p.284
2018학년도 수능	p.288

공부한 날

IV

우수 문항 모의고사로 실력 다지기

- 제1회 모의고사 p.292
- 제2회 모의고사 p.299
- 제3회 모의고사 p.306
- 제4회 모의고사 p.314
- 제5회 모의고사 p.321

책 속의 책 **秘** 서브노트 SUB NOTE

美來路

수능 기출문제집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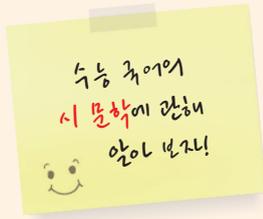
갈래별로 감잡기

수능 국어 문학 특강

- [갈래별] 핵심 개념 학습
- [갈래별] 문제 유형 학습

DAY 01	〈001~008〉	현대시	하
DAY 02	〈009~017〉	현대시	중하
DAY 03	〈018~026〉	현대시	중
DAY 04	〈027~035〉	고전 시가	하
DAY 05	〈036~044〉	고전 시가	중하
DAY 06	〈045~053〉	고전 시가	중
DAY 07	〈054~063〉	현대 소설	하
DAY 08	〈064~075〉	현대 소설	중하
DAY 09	〈076~086〉	현대 소설	중
DAY 10	〈087~095〉	고전 소설	하
DAY 11	〈096~105〉	고전 소설	중하
DAY 12	〈106~117〉	고전 소설	중
DAY 13	〈118~123〉	수필·극	하
DAY 14	〈124~129〉	수필·극	중하
DAY 15	〈130~138〉	수필·극	중

T H I N K M O R E A B O U T Y O U R F U T U R E



시 문학_핵심 개념 학습

시는 기본적으로 '시어', '이미지', '화자', '표현 방법', '시상 전개'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감상해야 한다.

시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

- ① 음악성: 시어가 잘 다듬어진 형태 속에서 운율과 같은 음악적 자질을 최대한 발현할 때, 시의 아름다움이 실현됨.
- ② 형상성: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시인이 전달하려는 관념과 정서가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경험적·감각적 차원으로 구체화될 때 시의 아름다움이 실현됨.
- ③ 함축성: 비유, 상징, 역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일상적·과학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가치가 표현될 때, 시의 아름다움이 실현됨.

공감각과 복합 감각의 구분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지만, 복합 감각은 두 개 이상의 감각이 나열됨.

- 예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 시각(타는 가을 강)의 청각(울음)화: 공감각
- 예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 놀 → 후각(술 익는 마을)+시각(타는 저녁 놀): 복합 감각

1 시어

1. 시어의 의미

- 사전적 의미** ○ 사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지시적 의미라고도 함.
- 함축적 의미** ○
 - 사전적 의미 외에 시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주관적이고 암시적인 의미
 - 한 단어의 함축적 의미는 비유나 상징 등을 통해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2. 시어의 특징

- 의미의 함축성** ○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압축·생략되어 있음.
- 해석의 다양성** ○ 하나의 시어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 시적 허용** ○ 문법상으로 틀린 표현이라도 시에서는 시적인 효과를 위해 어법·어휘 등에 파격이 허용됨.
- 음악성** ○ 일상의 언어와는 다른 독특한 운율, 즉 음악성을 지님.

3. 시어의 기능

- 음악적 효과(운율)를 줌.
- 시적 상황이나 분위기를 환기함.
- 시인의 생각, 감정 등의 추상적 의미를 전달함.
- 이미지(심상)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함.

4. 시의 운율

- 운율** ○ 시에서 특정한 음이나 글자 수 등이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음악적인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
- 운율의 종류** ○
 - 외형률** ○ 규칙적인 음절 수나 음보 수에 의해 형성되어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운율
 - 내재율** ○ 시 속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로, 주로 자유시나 산문시에 나타남.
- 운율의 형성 방법** ○
 - 특정한 음운의 반복
 - 음성 상징어(의성어, 의태어)의 사용
 - 음절 수, 음보의 반복
 - 문장 구조의 반복
 - 행과 연의 반복

2 이미지

- 이미지** ○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형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으로 '마음 속에 언어로 그린 그림', 즉 심상(心象)이라고도 함.
- 감각적 이미지** ○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공감각적 이미지
- 이미지의 종류** ○
 - 상징적 이미지** ○
 - 생성 이미지: 대상이 생겨나거나 소망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
 - 소멸 이미지: 대상이 사라지거나 소망이 좌절되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
 - 상승 이미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
 - 하강 이미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
 - 역동적 이미지: 힘차게 움직이는 생동감을 주는 이미지

시 문학_문제 유형 학습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냇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 굽뎠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라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뿡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女僧)」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 버스 정류장, 흠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문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 질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지,

거리에선 아직도 흠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 골목이 너무 좁았고

작품 분석 노트

(가)

1연 여승과의 만남(현재)

2연 여인과의 첫 만남(과거 1)

3연 여인의 비극적 삶(과거 2)

4연 여인이 승려가 되던 날(과거 3)

주제 여승의 비극적인 삶.

일제 강점 하 가족 공동체의 상실

(나)

1~8행

제비 가족을 바라봄(현재).

9~25행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마중 나감(과거).

26, 27행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아버지 제비의

못 위의 잠(현재)

주제 남루했던 아버지의 삶에 대한

연민의 정

유형 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유형 2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다) 어머니,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승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폼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어휘 풀이

- * 가지취: 산나물인 취나물의 일종
- * 금점판: 금점판(金店-). 예전에, 주로 수공업적 방식으로 작업하던 금광의 일터
- * 설벌: 설벌. 토종벌 중에서도 꿀을 모으기 위해 주로 나다니는 일벌
- * 적산(敵産):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日帝)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 에 이르는 말. 귀속 재산
- * 다다미[畳]: 마루방에 까는 일본식 돛자리. 속에 짚을 5cm가량의 두께로 넣고, 위에 돛 자리를 씌워 꿰맨 것

작품 분석 노트

(다)

1연 어릴 적 겨울 외풍을 막아 주던 아버지(과거)

2연 추운 밤이면 아버지를 그리워함(현재).

3연 얼어붙은 한강에서 아버지를 연상함(현재-오늘).

주제 유년기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



유형

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유형 분석

둘 이상의 작품을 묶어 놓고 시의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며 공통점을 파악하는 유형은 시 문학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 경우 주제와 소재, 시상 전개 방식, 이미지, 정서, 어조와 분위기, 태도 및 현실 대응 방식 등 내용과 형식을 두루 망라하여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유형 해결 방법

시적 상황을 파악한다.

시의 감상은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시를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는 여승이 된 어느 여인의 과거를 돌이켜 보는 상황이고, (나)는 제비를 보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는 한강의 얼음을 통해 어린 시절의 겨울밤을 연상하며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는 상황이다.

개별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이러한 유형은 각각의 선택지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공통점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 보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앞서 파악한 시적 상황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문제 풀이 요령을 하나 소개하면, 일단 (가) 작품의 특징이 선택지들에 나타나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는 방법이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답지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남아 있는 선택지 가운데에서 다른 작품에도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유형

2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유형 분석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모르고서는 시의 주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에서는 단순히 특정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접 묻기보다는 시적 상황이나 이미지, 배경 등의 다른 요소와 연관지어 종합적 사고를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 ☞ 시상의 흐름을 바탕으로 '똥덩이'와 '가래'의 시적 의미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나)의 ㉡와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형 해결 방법

시적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는 슬픈 사연을 간직한 채 살아가던 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는 새끼를 지키는 제비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 가난했던 시절, 가장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던 화자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시의 맥락 속에서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살핀다.

(나)에서 화자는 동지를 지키는 제비를 바라보다가 실직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냈던 아버지를 떠올린다. 가난했던 시절의 '꿀묵'은 너무나 좁아 아버지가 나란히 함께 가지 못하고 한 걸음 뒤에서 가족을 뒤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자기 연민과 외로움을 보여 준다. 또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기 어려웠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美來路

수능 기출문제집 시리즈

갈래별로 감잡기

수능 작품과 유형 분석(10개년)



2018	<p>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김광규, 「묘비명」 - 현대시 + 평론, 3문항</p> <p>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자료를 통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외적 준거를 통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2017	<p>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 현대시 + 극, 6문항</p> <p>1.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자료를 통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갈래의 특징 파악 ○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극) 5. 공간의 의미 파악 ○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 대사의 의미 파악 ○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극)</p>
2016	<p>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p> <p>1. 작품 간의 비교 ○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시구의 의미 파악 ○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2015	<p>오장환, 「고향 앞에서」 / 최두석, 「넓은 집」</p> <p>1. 작품 간의 비교 감상 ○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시구의 의미 파악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2014	<p>조지훈, 「파초우」 / 광재구, 「사평역에서」</p> <p>1.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시구의 의미 파악 ○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감상의 적절성 판단 ○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2013	<p>김수영, 「폭포」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p> <p>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시상 전개 방식의 파악 ○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할 것은?</p>
2012	<p>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이광명, 「북찬가」 - 현대시 + 고전 시가, 6문항</p> <p>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표현상의 특징 파악 ○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감상의 적절성 파악 ○ [보기]의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작품의 구조 파악 ○ (나)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 (다)의 ㉠~㉢ 중 함축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고전 시가)</p>
2011	<p>윤동주, 「자화상」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김영민, 「그 나무」</p> <p>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표현상의 특징 비교 ○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2010	<p>조지훈, 「승무」 / 송수권, 「지리산 뱀꼭새」 / 송순, 「면앙정가」 - 현대시 + 고전 시가, 6문항</p> <p>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작품의 종합적 이해 ○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표현상의 특징 비교 ○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 시가)</p>
2009	<p>한용운, 「님의 침묵」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작자 미상, 「춘면곡」 - 현대시 + 고전 시가, 6문항</p> <p>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시구의 의미 파악 ○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엮어 읽기의 적절성 판단 ○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작품의 종합적 감상 ○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 시가)</p>



현대시

THINK MORE ABOUT YOUR FUTURE

현대시는 일반적으로 2~3개 작품이 묶여서 출제되는데, 고전 시가와 함께 시가 복합의 형태로 출제되거나 현대 수필과 함께 갈래 복합의 형태로 출제되기도 한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희곡과 함께 묶여 새로운 갈래 복합의 출제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체로 주제, 소재, 화자의 정서나 태도 면에서 유사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작품들이 묶여서 출제되는 편이다.

▶ 작품 출제 경향

광복 이전의 시보다 광복 이후의 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지만, 편차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광복 이전과 이후의 시를 골고루 학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시인의 작품이나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작품의 출제율이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낯선 작품도 스스로 분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 출제 경향

주로 현대시 2개 작품에 3문항이 출제되는 편이었지만,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6문항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현대시와 함께 묶이는 복합 제재의 갈래나 수에 따라 문항 수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 개의 작품이 출제되므로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 필수적으로 출제되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등 현대시 감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된다. 최근에는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작품을 내용적·형식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고난도의 문제 유형이 자주 출제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001~0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진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작품 분석 노트

가

1 연:

2 연:

3 연:

4 연:

5 연:

주제:

나

1 연:

2, 3 연:

4 연:

주제:

00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정답률 90% ↑ 75% ↑ 60% ↑ 45% ↑

MY note

I
현대시
DAY
01

0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③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④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률 90% ↑ 75% ↑ 60% ↑ 45% ↑

MY note

00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정답률 90% ↑ 75% ↑ 60% ↑ 45% ↑

🕒 고난도 문항 Guide

[보기]에서 (가)의 시인과 (나)의 시인이 보인 모더니즘 경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시인의 작품 경향과 (가)와 (나)의 내용, 표현상의 특징 등을 적절히 연결하였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MY note



[004~0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작품 분석 노트

가

1, 2 행:

3, 4 행:

5~10 행:

11, 12 행:

주제:

나

1 연:

2, 3 연:

4~6 연:

주제:

004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률 90%↑ 75%↑ 60%↑ 45%↑

MY note

I
현대시
DAY
01

00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정답률 90%↑ 75%↑ 60%↑ 45%↑

고난도 문항 Guide

(가)와 (나)의 주제 의식과 그것을 드러내는 소재,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한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되, (가)와 (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선택지 중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 적절하지 않은 진술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도록 한다.

MY note

006 ㉠, ㉡과 관련지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음을 나타낸다.
-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건을 나타낸다.

정답률 90%↑ 75%↑ 60%↑ 45%↑

MY note



[007, 0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작품 분석 노트

가

1 연:

2 연:

3 연:

주제:

나

1 행:

2 행:

3 행:

4 행:

주제:

00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률 90% ↑ 75% ↑ 60% ↑ 45% ↑

MY note

008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뿔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률 90%↑ 75%↑ 60%↑ 45%↑

고난도 문항 Guide

[보기]에서 (가)와 (나) 두 작품 모두 화자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하며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선택지에 제시된 시적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 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지 꼼꼼히 파악하되, 반드시 시상 전개의 흐름에 근거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MY note

I
현대시
DAY
01

DAY 01 스스로 점검하기

현대시 01	소요 시간	분 초	맞힌 개수	/ 3	틀린 문항
현대시 02	소요 시간	분 초	맞힌 개수	/ 3	틀린 문항
현대시 03	소요 시간	분 초	맞힌 개수	/ 2	틀린 문항